

SUKHAVATI

FOOTBALL CLUB ANYANG MAGAZINE 2025.09





ANYANG

SUKHAVATI

ZOMBIE

TABLE OF CONTENT

INTRO

2025 FC안양 타임라인

STATS

수치로 보는 2024 & 2025

INTERVIEW

'대기만성' 골키퍼 김다솔 인터뷰

LEGACY

FC안양의 역사 자체 '이우형'

'FC AN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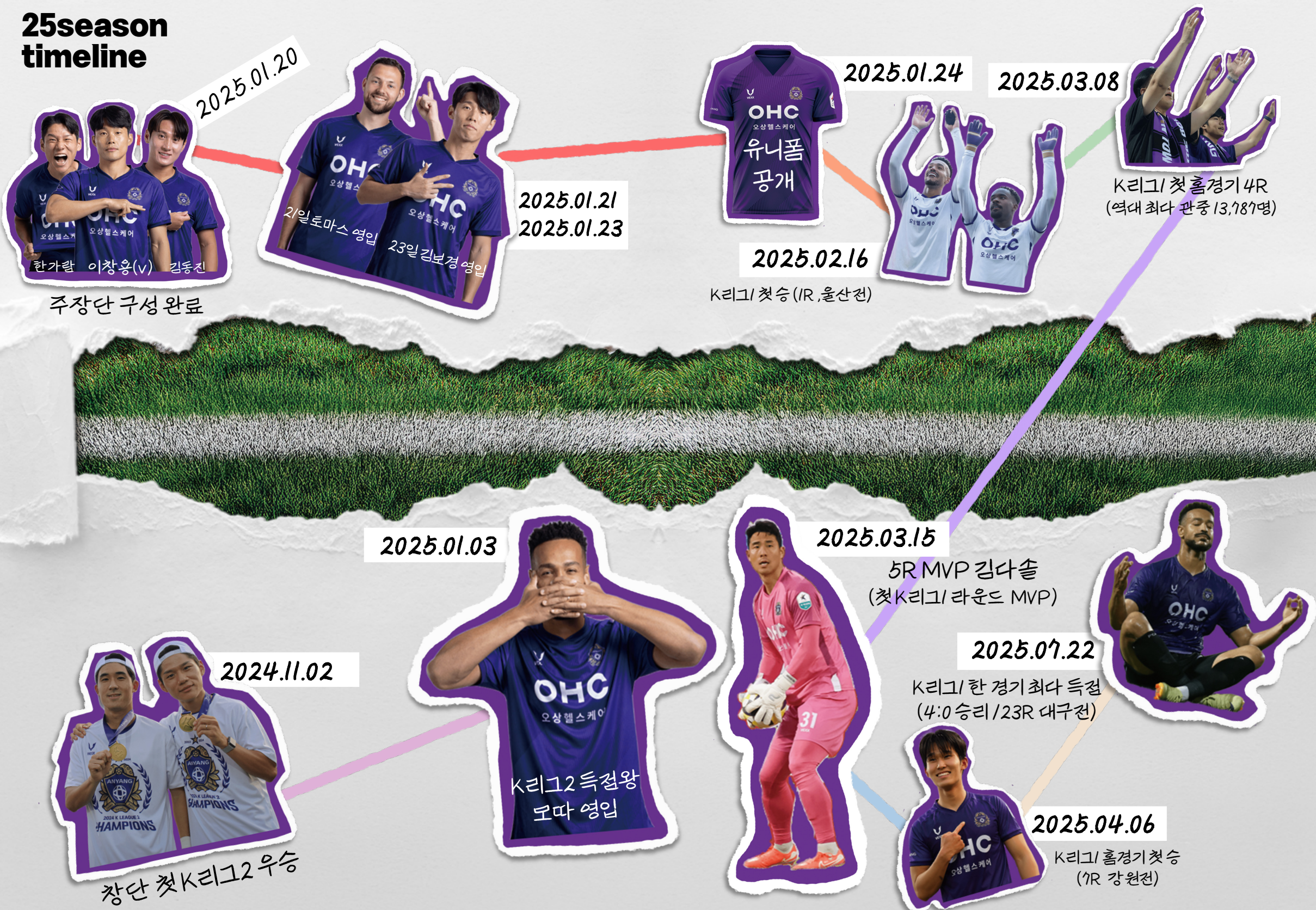
FC안양의 모든 것을 돌아봤다

FAN ZONE

팬들과 함께하는 퀴즈 타임!



25season timeline



2025.01.20



주장단 구성 완료



2025.01.21
2025.01.23



2025.01.24

2025.03.08



K리그1 첫 홈경기 4R
(역대 최다 관중 13,787명)

2025.02.16

K리그1 첫 승 (1R, 울산전)

2025.01.03



K리그2 득점왕
모따 영입

2025.03.15

5R MVP 김다솔
(첫 K리그1 라운드 MVP)



2025.07.22

K리그1 한 경기 최다 득점
(4:0 승리 / 23R 대구전)



2024.11.02



창단 첫 K리그2 우승

2025.04.06

K리그1 홈경기 첫 승
(1R 강원전)





기록으로 보는 2025시즌 상반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R 기준

득점



모파 11골 마테우스 9골 채현우 3골

어시스트



아고 6도움 모파 3도움 김동진 2도움

슈팅



마테우스 67회 모파 62회 아고 35회

드리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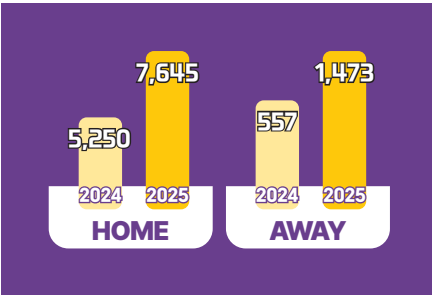


아고 6번 모파, 채현우, 토마스, 마테우스, 에두아르도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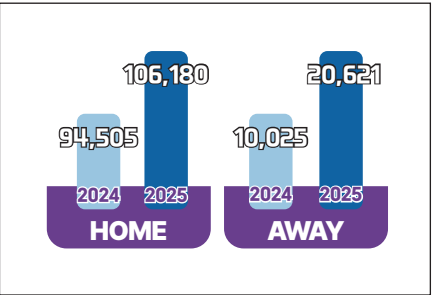
관중 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R

평균 관중 수



누적 관중 수



마킹 순위

*2025년 6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TOP3

*2025 업로드 영상(8월 기준)



K리그1에 올려 퍼지는 안양 폭도 맹진가
조회수 58,276회



역사적인 첫 경기, 역사적인 첫 승 | 1라운드 피치캠 (안양vs울산)
조회수 27,607회



경원아 어서 와 안양은 처음이라고~? | 순간의 순간
조회수 25,657회

No.31 KIMDASOL

'대기만성 수문장', 김다솔

과거 '특급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다. 세간의 기대에 걸맞게 승승장구만을 꿈꿨지만, 반복된 부상으로 여러 차례 고비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좌절이 연속됐던 상황이었기에 '은퇴'라는 극단까지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순 없었다. 오독이처럼 일어나기로 굳세게 마음을 다잡았다. 안양과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기어코, 자신의 이름 석자를 K리그 무대에 알리기 시작했다. 보랏빛에 물들며 점차 무르익어 간 '대기만성 수문장' 김다솔의 이야기다.

INTERVIEW



1. 0623 18R 수원전 / 2. 0628 20R 광주전 / 3. 0523 15R 포항전 / 4. 0528 16R 강원전

Q. 유소년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였습니다.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목표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도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골키퍼로서 신장이 중요하잖아요. 큰 키를 가지기 위해서 줄넘기하고, 잠도 많이 잤습니다.

Q. 프로 커리어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다면?

부상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한 직후 기회를 얻었지만, 큰 부상을 당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대전시티즌(대전하나 시티즌)과 인천 유나이티드에서도 같은 부상으로 인해 고생하며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부상이 재발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강이 피로골절이 계속 재발해서 3~4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Q. 여러 구단을 거친 후, 2024시즌에 안양에 입단하셨습니다. 안양을 택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전남 드래곤즈를 나오면서 선수 커리어는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비워두고 지도자 교육을 받는 와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최익형 코치님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한 시즌을 소화한 기억이 많지 않은, 커리어 내내 컨디션 회복과 부상의 반복이었던 말년에 접어든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죠. 당시 예정되어 있던 가족 여행까지 취소하고 안양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Q. 어려웠던 시기들이 연이었는데, 당시를 되돌아보니 소회가 어떠신가요?

큰 부상들이 반복되면서 좌절했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웃음). 다만 인복이라는 천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일으며 세워준 은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학 시절부터 여러 팀을 거치면서까지 좋은 지도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 연이었는데도 언제나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Q. 안양에 합류한 직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셨습니다. 2024시즌을 돌아보자면?

팀이 잘되니 개인적으로도 좋은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프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경기(35경기)를 뒀 시즌이었는데, 그라운드를 밟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Q. 우승과 승격이라는 대업의 주역으로 활약하셨습니다. 1년의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은.

개인적으로도, 팀 차체로도 목표를 이뤄낸 시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이 없이 시즌을 마무리했고, 결과적으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베스트11'이라는 상까지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했지만, 이처럼 기분 좋은 시즌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치러봤습니다.



Q. 5라운드(대구FC전)에서는 신들린 선방 쇼를 보여주며 팀의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성과를 인정받아 '라운드 MVP'로도 선정되셨는데요.

사실 지난 경기는 수비진의 공이 컸습니다. (김)영찬이, 창용이, (김)정현이 등 모두가 몸을 날려 수비해 준 덕분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어요. MVP로 선정된 당일에만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후에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Q. 안양은 선수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심장이나 마친가지입니다. '보라색 피'가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웃음). 사실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양에 오고 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마음이 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양에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안양에 선수 생활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은퇴까지 하고 싶습니다.

Q. 변함없이 응원을 전해주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S.U. RED'는 '최고'입니다. 경기에 패해도 응원을 해주시고, 선수들이 위촉되지 않도록 경기장 안에서 비판을 자제해 주십니다. 또한, 원정 경기장에서도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절실해지기도 해요.

"1부에 걸맞은 팬들을 보유한 구단이기에 저희도 오랫동안 1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올 경기들에서도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수카바티 안양!"

FC ANYANG

Legacy

안양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축구팀의 창단부터, 팀의 성공과 실패
승강 플레이오프, 그리고 마침내 승격까지.
FC안양의 찬란했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

얼마 전, FC안양의 신임 단장으로 이우형 단장이 선임되었다.
감독 - 전력 강화부장 - 테크니컬 디렉터 - 단장까지 역임한 사례는
FC안양 창단 이래 최초이다.

지난 2013년, FC안양의 초대 감독을 맡았던 이우형 단장은
이제 단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안고, 구단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FC안양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우형 단장,
그에게 'FC안양'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Editor 미디어크루 3기 선행탁

2013

FC안양 창단식

FC안양 이우형 초대 감독

2019

FC안양 이우형 전력 강화부장

구단 최초 K리그2 플레이오프(vs부천FC1955)

구단 최초 K리그2 준플레이오프(vs부산아이파크)

2021

구단 최고 성적 정규리그 2위

FC안양 6대 감독 이우형

2022

구단 최초 승강플레이오프 진출(vs수원삼성)

2023

FC안양 이우형 테크니컬 디렉터로 보직 변경

2024

창단 11년 만의 K리그2 우승

K리그1 다이렉트 승격

2025

FC안양 이우형 9대 단장

초대 감독에서, 단장까지

Editor. 미디어크루 3기 선형탁 Interview source. 풋볼리스트

구단 초대 감독, 전력 강화실장, 테크니컬 디렉터를 거쳐, 단장까지. FC안양 역사에서 ‘이우형’이라는 이름은 빼놓을 수 없다. 단장이 된 이우형,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우형 단장은 다른 역할의 고충들을 털어 놓았다.

“첫 번째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다(웃음). 익숙해지는 중이다. 그동안 외부적으로만 일을 해왔고, 내부적으로 깊숙이는 잘 알지 못했다. 일주일 정도 일하면서 관찰한 결과 생각보다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다”라며 소회를 전했다. 리그의 절반의 훌쩍 지난 시점, 이우형 단장은 남은 시즌 계획에 대해 밝혔다. “여름 이적 시장은 끝났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선수들의 복지다. 선수단에 대해서는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다 들어줘야 한다. 우리가 클럽 하우스도 없고 부족하지만 선수단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며 이제는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잔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일단 생존을 해야한다. 잘 버텨서 내년까지 K리그1에 계속 있는다면 분명히 올해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YOUR STORY IS OUR HISTORY”

2013

2020

분명히 3년 안에 상위 스플릿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유병훈 감독과 소통하고 있는데, 3년 안에 여기서 경쟁력을 갖추면 5년 안에는 ACL처럼 그 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미래에 대한 목표도 분명히 했다.

이우형 단장에게 ‘FC안양’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우형 단장은 가장 먼저 ‘팬’들을 언급했다.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크다. 안양은 과거에 연고지 이전이라는 아픔을 겪고 어렵게 창단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은 팬들이라 애착이 굉장하다”라며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감독으로 활동하며, 팬들의 응원을 직접 받던 때에는, “어웨이에서도 우리 홈 같고, 우리 팬들의 목소리만 들린다고,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다”라며 팬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양이라는 구단, 그리고 이우형 단장에게 A.S.U. RED는 빼놓을 수 없다. 구단의 역사를 함께한 이우형 단장에게 FC안양은, ‘팬’ 그 자체였다. 프로 축구는 팬이 없다면, 구단도 없다.

FC안양에는 특별한 서포터즈가 있다. 빼앗긴 팀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린 사람들이 있다.

바로 FC안양의 ‘심장’ A.S.U. RED다.

구단 창단부터, 첫 우승까지
팀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이우형 단장은
FC안양의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FC ANYANG
S.U. RED : 안양이 존재하는 이유

Editor. 미디어크루 3기 선형탁 Photo. 미디어크루 3기 선형탁

“그 목소리가 있는 한, 안양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올해 홈 개막전, 13,579명의 발소리가 안양종합운동장을 흔들었다. ‘역대 최다 관중’이라는 기록이었지만, 그 안을 채운 건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건 보랏빛 물결이었다. 유니폼과 머플러,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일렁였고, 북소리와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경기 시작 전부터 그들의 열기가 경기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 함성은 더욱 커졌다.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갈 때마다 터져 나오는 탄성은 순간순간 경기장의 온도를 끌어올렸고, 경기 내용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목소리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원정에서도 그 열기는 식지 않았다. 먼 거리와 곳은 날씨에도 팬들은 마치 오랜 약속처럼 변함없이 선수들 곁을 든든히 지켰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색으로. FC안양의 보랏빛 함성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

그 목소리가 있는 한, 안양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2004년, 모든 게 갑작스러웠다. 팬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응원하던 구단을 잃었고, 외면당했다. 당시 팬들이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손길이 다시금 안양에 보랏빛을 피워내었다. 그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단을 다시 세웠고, 우리의 축구를 되찾았다. 그리고 2024년, FC안양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1부리그 승격을 당당히 이루며, 안양이 돌아왔음을 온 세상에 알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안양의 보랏빛 이야기는 열정적인 선수들과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여정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단을 빛내고 지켜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선수들처럼 조명을 받진 못하지만, 굳건히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다하며 안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 프런트, 관리팀까지 매 경기, 매 시즌 구단 곳곳에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그들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구단과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팬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들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은 '팬 프렌들리 클럽상'과 'K리그 플러스 스타디움상' 수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단과 팬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애쓰는 이들이 있었기에, FC안양은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덕분에 구단은 더욱 단단해졌고, 팬과 함께하는 진정한 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단지 '업무'가 아닌 구단과 팬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팀을 위해 헌신해 온 그들은 FC 안양의 진짜 힘이다.

FAN FRIENDLY AWARDS PLUS STADIUM AWARDS



이 선수들을 주목하세요!

FC안양 U-18 오형준 & 임채민

FC ANYANG

outh : 우리의 미래

Editor. 미디어크루 3기 선행탁 Interviewer. 미디어크루 3기 양진우

안양의 보랏빛 태양 아래, 푸른 잔디를 달리는 학생들이 있다. 2025년, FC안양 유스팀은 계속 성장 중이다. 작년, 클럽 자체 팀으로 변경되며 큰 변화를 겪었지만 올해도 날갯짓은 멈추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FC안양의 이름을 전국 그라운드에 새기고 있다. 축구에서 유스팀은 단순한 '어린 선수'들이 아니다. 유스팀은 구단이 꿈꾸는 미래이자, 도시가 품은 자산이다. 안양의 골목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나아가 아워네이션에서, 유소년 선수들은 보랏빛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팬들 앞에 설 날을 위해 심없이 노력한다.

그 가운데, 세 명의 선수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가슴에 품을 준비를 마쳤다. 그 주인공은 FC안양 U-18 팀의 임채민, 조정윤, 이도현이다. 이들의 잠재력을 주목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창단 첫째, 저학년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6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캡틴' 오형준을 주축으로 한 결속력 덕분이었다. 주장 오형준의 책임감, 그리고 임채민이 보여준 가능성, 안양 또한 유스들의 힘을 기대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안양의 유스팀의 스토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다.

[임채민 인터뷰]

Q. U-16 국가대표 소집, 소감이 어땠나요?

처음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고, 동시에 경쟁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Q. FC 안양 유스 선수로 뽑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유스 선수가 아니라, 안양이라는 도시와 팬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기 목표는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되어 내년 U-17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준프로 계약을 통해 성인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인 대표팀에 뽑히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Q. FC안양의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FC안양이라는 팀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팬들의 응원이 팀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형준 인터뷰]

Q. 주장으로서 갖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있나요?

주장이다 보니 모범이 되려 하고, 훈련이나 경기에서 패스 하나, 터치 하나에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 질책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 좋게 분위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Q. 주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전반기 리그에서 성남 FC와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팀이 잘 똘똘해서 경기했고, 승점 3점을 얻어서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 또 챔피언십 부산전에서 제가 큰 찬스를 놓쳤을 때 맨탈이 흔들렸는데, 동료들이 옆에서 좋은 말로 격려해 주었던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Q. FC안양 U-18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저희도 그 열정에 보답하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FC안양의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기에 찾아와 응원해 주시는 게 과분할 때도 있고, 보답을 확실히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주시면, 그에 맞게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 임채민
포지션 : 미드필더
학년 : 1
강점 : 라인브레이킹
폴모델 : 최규현



이름 : 오형준
포지션 : 공격수
학년 : 3
강점 : 슈팅, 활동량
폴모델 : 도파

FC ANYANG

gainst : '승리'만큼 소중한 '우리'

Editor. 미디어크루 3기 선행탁 Writer. 미디어크루 3기 이주엽

강등 후보 1순위. 2025시즌을 앞두고 일각에서 안양을 향해 내린 평가였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안양은 2025시즌 유일한 승격팀이었을뿐더러 단 한 번도 K리그1 무대를 경험해 본 기억이 없는 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다. 안양은 세간의 평가에 보란 듯, 1라운드부터 '디펜딩 챔피언' 울산HD를 꺾으며 구단 역사상 K리그1 첫 승을 거뒀다. 그리곤 1로빈에서만 5승을 거두며 중위권 질주를 이어갔다. 무더운 여름에 접어들며 기세는 잠시 꺾였다. 그러면서 다시금 '2부 악몽', '강등'이라는 단어들 이 안양의 꼬리표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양은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도전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직면한 혹평에 반하여 또다시 일어서고자 한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으리. 우리는 용감무쌍해”



You Go! We Go!

CHAE HYUN-WOO

FC ANYANG

ational Team : FC안양의 '자랑'

Editor. 미디어크루 3기 선행탁 Writer. 미디어크루 3기 이주엽

한동안 '국가대표팀'과 거리가 멀었던 안양.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K리그1 승격은 촉매제 역할을 해냈고, 그동안 빛나지 못했던 별들이 대표팀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원더 키드' 채현우가 그 물꼬를 텄다. 전반기 내내 2선 전역에서 제 역할을 다 해낸 채현우는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세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호주와 맞선 두 번의 친선 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태극마크 데뷔'도 일궈냈다. 안양의 '핵심 미드필더'이자 '살림꾼'인 김정현도 국가대표에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비록 홍명보 호 승선에는 실패했지만, 국내에서 개최됐던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던 것. 지금의 활약을 이어간다면 그의 '매치 데뷔'는 단순한 꿈으로 남지만은 않을 것 같다. 대미는 권경원이 장식했다. 안양은 지난 7월 4일, 권경원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월드컵 예선과 본선, 동아시안컵 등에 출전하며 기량을 인정받은 '국가대표 수비수'가 안양에 합류한 것이다.

현역 국가대표가 안양에 합류한 사례는 역사상 최초였다

FC ANYANG

lory : '승리'만큼 소중한 '우리'

Editor. 미디어크루 3기 선행탁 Writer. 미디어크루 3기 이주엽

“오직 우리에겐 승리뿐. 뛰어, 힘차게 정상을 향하여. 외쳐, 승리를 위한 함성. 안양의 영광을 위해” 승리. 바이올렛 좀비들이 그라운드를 거칠게 누비는 이유이자, A. S. U. RED가 아워네이션에서 힘찬 응원을 펼치는 본질이다. 그러나 2025시즌, 당연하게도 지난 몇 차례의 시즌에 비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가 전부임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도전자의 정신', 그 숭고한 가치의 소중함을 여실히 깨닫게 된 2025시즌이다. 세간의 평가를 뒤집기 위해 그라운드를 누비는 바이올렛 좀비들의 절실함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흘리는 땀과 눈물을, 우리는 승리보다 소중히 여기게 됐다. 그렇기에 K리그1에서 쟁취한 승리 하나하나의 기쁨과 희열, 그리고 감동은 배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WHO AM I?

Q. 독일에서의 경력이 궁금하다

유소년 팀에서 활동하다가, 5부 리그에 속해 있던 FC 오버노일란트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팀이 승격하면서 4부 리그까지 올라섰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4부 리그 소속 팀인 VfL 슈포르트프로인데 로테와 BSV 슈바르츠바이스 레덴에서 뛰었습니다

Q. 2024년, FC안양 소속이 된 소감은?

우선, 이름만 들어봤던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우면서도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국 무대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에서 해왔던 축구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2025시즌, 부주장으로 선임된 계기

지난 시즌, 팀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던 홍창범 선수가 떠나면서 부주장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새로운 부주장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동계 훈련 중 창용이 형이 "부주장 역할, 잘할 수 있겠니?"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감독님과 상의하신 뒤 제안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주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Q. 서포터즈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팬 여러분께서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정말 큰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경기에서 패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박수로 선수들을 맞아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저희 선수들에게 다음 경기를 위한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선수 본인에게 안양이란?

안양을 만난 건 제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세상에 몇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선수로서 은퇴하더라도, 안양을 응원하고 팬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반드시 경기장을 찾을 겁니다. 그만큼 안양은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입니다.



FC안양 블로그에
퀴즈 정답 인증시 경품 지급!

(1)			(1)					(6)	
									
			(5)		(2)		(7)		
(2)	(3)								
				(6)			(8)		(8)
									
			(4)	(5)					
(4)									
(3)							(9)		

가로

- (1) FC안양 홈경기장 이름
- (2) 안양! 만안에서 00까지
- (3) 000의 정신으로
- (4) FC안양의 대표컬러
- (5) 팀의 후방을 지키는 선수
- (6) FC안양의 대표 마스크
- (7) 평촌서울00병원
- (8) 000출신 수비수 권경원
- (9)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 영입된 외국인 선수

세로

- (1) FC안양의 No.14
- (2) 0000 안양!
- (3) 구단의 연고 도시
- (4) 안양00맹진가
- (5) FC안양의 주장
- (6) FC안양의 No.71
- (7) FC안양의 마스크 여자친구
- (8) 구성원간 합을 의미하는 단어



FC안양 블로그에 퀴즈
정답 인증시 경품 지급!

모든 스포츠,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하여!



스포츠에 대한 진심,
열정 가득한 도전,
포기하지 않는 용기!

DOO
BETTER
SPORT

- CLOTHING SALES
- SPONSORSHIP & PARTNERSHIP
- MD LICENSE

www.vexxsports.com

©@v_exx_official